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일시: 2017년 6월 4일 (주일) 오후 3시

장소: Judson Memorial Church,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917-622-2471

<http://tltcnyc.org/>

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7년 6월 4일(주일) 오후 3시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장동인

"믿음에 관하여" (시, 임영석)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해나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 (시, 김상현)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6,1-12

화두: "나는 신앙인(기독교인, 종교인)인가? 왜 신앙인으로 살아 가는가?"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김웅

"글쓰기" (시, 정현종)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아름다운 사람" (민중가요)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믿음에 관하여

나무를 보니 나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겠다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있어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가야겠다

그러려면 먼저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에
내 마음의 나무 한 그루 심어야겠다

눈과 비, 천둥과 번개를 말씀으로 삼아
내 마음이 너덜너덜 닳고 헤질 때까지
받아 적고 받아 적어 어떠한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침묵의 기도문 하나 허공에 세워야겠다

남들이 부질없다고 다 버린 똥, 오줌
향기롭게 달게 받아먹고 삼킬 수 있는 나무,
무엇을 소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무,
누구에게나 그들이 되어주는 나무,
그런 나무의 믿음을 가져야겠다

하늘 아래 살면서 외롭고 고독할 때
눈물을 펄펄 흘리며 울고 싶을 때
못 들은 척 두 귀를 막고 눈감아 주는 나무처럼
나도 내 몸에 그런 믿음을 가득 새겨야겠다

(시, 임영석 - 낭독: 장동인)

한 마음 한 노래 (시)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

나뭇잎에 아침이슬 맺듯
자고 나면 내게도
이마에 맑디맑은
기쁨 서리기를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 김상현 - 낭독: 해나)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6,1-12

화두: 나는 신앙인(기독교인, 종교인)인가? 왜 신앙인으로 살아 가는가?

일자: 2017 년 6 월 4 일

6:1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 때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 6:2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 몇몇이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6:3 예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6:4 다윗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들밖에 먹을 수 없는 제단의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6:5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6:6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셨는데 거기에 마침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6:7 한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그를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6:8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 서라." 하셨다. 그가 일어나 가운데로 나서자 6:9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하였느냐?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라고 하였느냐? 악한 일을 하라고 하였느냐? 사람을 살리라고 하였느냐? 죽이라고 하였느냐?" 6:10 이렇게 물으시며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이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6:11 그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6:12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들어가 밤을 새우시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6:1 One Sabbath Jesus was going through the grainfields, and his disciples began to pick some heads of grain, rub them in their hands and eat the kernels.6:2 Some of the Pharisees asked, "Why are you doing what is unlawful on the Sabbath?"6:3 Jesus answered them, "Have you never read what David did when he and his companions were hungry?6:4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taking the consecrated bread, he ate what is lawful only for priests to eat. And he also gave some to his companions."6:5 Then Jesus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6:6 On another Sabbath he went into the synagogue and was teaching, and a man was there whose right hand was shriveled.6:7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ere looking for a reason to accuse Jesus, so they watched him closely to see if he would heal on the Sabbath.6:8 But Jesus knew what they were thinking and said to the man with the shriveled hand, "Get up and stand in front of everyone." So he got up and stood there.6:9 Then Jesus said to them, "I ask you,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to do good or to do evil, to save life or to destroy it?"6:10 He looked around at them all, and then said to the man, "Stretch out your hand." He did so, and his hand was completely restored.6:11 But they were furious and began to discuss with one another what they might do to Jesus.6:12 One of those days Jesus went out to a mountainside to pray, and spent the night praying to God.

한 마음 한 노래 (시)

글쓰기

뭘 하느냐구요?
빛을 만들고 있어요.
어두워서,
자칫하면
어두워지니까.

나의 안팎
자칫하면
어두워지니까.

(시, 정현종 - 낭독: 김웅)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아름다운 사람

김민기 작사 작곡

C F C

어 두 운 비 내 - 려 오 면
람 어 오 면
관 내 - 려 오 면

5 Am Em F D7 G

처 마 밑 에 한 아 이 울 고 서 있 네
들 - 판 에 한 아 이 달 - 려 가 네
산 - 위 에 한 아 이 우 뚝 서 있 네

9 C Em F Fm6 C

그 말 은 두 눈 에 빛 물 고 이 면 음 -
그 더 운 가 숨 에 노 래 울 리 면 음 -
그 고 운 마 음 에 노 래 울 리 면 음 -

13 Am Dm G7 C

- 아 름 다 운 그 이 는 사 람 이 어 라 새 찬 바
- 아 름 다 운 그 이 는 사 람 이 어 라 새 하 안
- 아 름 다 운 그 이 는 사 람 이 어 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하느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와 착취가 만연하고

그것이 체제화되어 갖가지 악과 범죄가 만연하여 힘없는 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러한 악과 범죄에 피해자로, 방관자로, 가해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내 안에도 있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자기중심적인 태도, 가식, 거짓, 질시,
욕심, 욕망, 교만, 악한생각 등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슬프게 하지만,

때론 그런 내 자신과 세상의 모순을 무시하고 포기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내 자신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결국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그러다 우리가 유혹과 욕심에, 때론 시련과 한계에 부딪혀 실패하거든

꺼져가며 연기 피우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불길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당신의 사랑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옵소서

우리 서로 간에, 또한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고

보살핌의 수고를 기꺼이 하는 그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뒤에는 우리 서로가 든든히 버티고 있음을,

그런 우리 뒤에는 하느님이 든든히 버티고 계심을,

그러한 든든함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사랑하고 기쁘게 희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